

보도일시

(인터넷) 2026. 8. 30.(일) 11:00
(지면) 2026. 8. 31.(월) 조간

배포 2026. 8. 28.(금) 오후

추석명절 전 항만·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한다

- 8월 31일(월)부터 9월 11일(금)까지 2주간 75개 건설현장 집중점검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(월)부터 9월 11일(금)까지 2주간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를 통해, 항만·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하였는지,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및 자재·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.

특히, 근로자임금이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.

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장은 “추석명절 전 항만·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, 건설 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원중 (051-773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제호 (051-773-5931)